

# 이념과 현실에 맞서 거둔 모색의 성과들

책으로 쓰는 자서전 — 20

김병익 | 문학평론가 · 인하대 국문과 초빙교수

“저술이며 역서 · 편서까지 내 이름으로 나온 책이 지금까지 모두 37권, 나의 글쓰기 작업들은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정치와 현실에 대한 긴장이 느슨해지는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나의 내면적 배회는 상당히 활발했고 내 사유와 정신은 꽤 넓게 돌아다니며 변해갔다. 근 20년간 써온 내 글들은 억압에서 갈등으로, 거기서 다시 해체로 움직여가는 현실과 문화와 문학에 대한 내 나름의 해석과 평가와 모색의 결과들이었다.”

사장답지 않게 교정이라는 실무적인 일에 매달리던 때를 회상하면서 나는 내가 글쟁이이기를 버리고 사장티를 낸다는 말을 무척 듣기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를 썼다. 사실 나는 ‘책장사’를 하고 저자들을 만나면서 정작 내가 더 이상 문필가가 아니며 저자로서의 직책을 팽개쳤다는 편지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다행히 내가 쓸 원고들도 있었고 잡지며 신문에서 끈질기게 글 청탁도 받았기에 나는 글쓰기에 게으름 수도 없었다.

## 시대의 부침 담긴 글쓰기의 편력

나의 단독으로 나온 첫 비평집 《한국문학의 의식》은 문학과지성사를 창사한 지 한달 남짓한 1976년 1월에 동화출판공사를 통해 간행됐다. 당시 주간이었던 이근배 시인이 내게 책을 내자고 제의해와 4K 공저인 《현대한국문학의 이론》(정음사) 이후 3년여 동안 발표한 글들을 <동화예술신서>의 하나로 모아 엮었다. 비평가라면서 내 개인 평론집을 근 10년 만에 가질 수 있게 된 감회는, 자비출판이 아닌, 인세를 받는 출판으로 비평집을 내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당시의 사정을 감안해 더욱이 유다른 것이었다. 나도 이제는 내 자신의 비평저서를 갖게 된 것이다. 신문사를 그만뒀야 했고 기자회견장으로서의 당당한 위세도 빠져나가 후줄그레해진 내게 이근배씨가 준 격려는 참으로 큰 것이었고, 그럼에도 그에게 그

빛을 끝내 갚지 못한 나의 부덕은 지금껏 유감으로 남아 있다.

이후 나는 거의 3년마다 한권 꼴로, 그것도 문학과지성사를 통해 문학평론집들을 내게 된다. 《상황과 상상력》(1979), 《지성과 문학》(1982), 《들린 시대의 문학》(1985), 《전망을 위한 성찰》(1987), 그리고 1990년대로 들어서 《열림과 일금》(1991), 《숨은 진실과 문학》(1994), 《새로운 글쓰기와 문학의 진정성》(1997) 등의 목록들은 내가 거의 어김없이 한 해에 7, 8편의 글을 써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비평집들의 출판과 대체로 때를 같이하며 그러나 출판사는 달리하며 에세이 집들을 더불어 간행한 것도 확인된다. 《문화와 반문화》(문장사, 1979), 《부드러움의 힘》(청하, 1988), 《우공(愚公)의 호수를 보며》(세계사, 1991), 《페루에는 페루 사람들이 산다》(문학과지성사, 1997)와 《생각의 안과 밖》(문이당, 1997), 《무서운, 멋진 신세계》(문학과지성사, 1999)가 그것들이다. 이렇게 된 것은, 그러니까 비평집 한권을 엮을 분량이 됐다 싶어 원고를 정리하다 보면 본격적인 평론은 아닌, 수필이나 칼럼의 글들이 그만큼 쌓이는 것이고 버리자니 아까운 그것들을 나름대로 묶어두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면서 내가 한 일은 좀더 있다. 나는 영어

의 듣고 말하기에는 귀머거리, 병어리지만 번역을 해본 경험은 있으므로 책이 좋다 싶으면 공부 삼아 청탁으로나 자진해서 번역일을 했다. 권영빈씨와 공역한 E. H. 카의 《도스토예프스키》(홍성사, 1979)는 내가 가장 경도한 러시아 대작가의 세계를 더 잘 알고 싶어서였고 휴즈의 《현대프랑스 지성사》(문학과지성사, 1981)는 내 기호에 딱 맞는 책이어서 자원했던 것이며 허버트 리드의 미학서인 《도상(圖像)과 사상》(열화당, 1982)은 이기웅 사장 청탁으로 손을 댄 것인데 내게는 힘든 일이었던 것을 이기웅씨 자신이 많이 손질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나의 번역 작업으로는 마지막인 유진 런의 《마르크시즘과 모더니즘》(문학과지성사, 1986)은 당시의 힘찬 물결로 다가온 진보주의적 사조를 이해하며 그 문학론을 알고 싶어서 서평을 보자 미국의 마중기에게 부탁해서 입수하는 대로 곧장 번역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밖에 은애출판사에서 기획한 <우리 시대의 작가 연구 총서>에 김 현과 분담해서 최인훈과 정현중을 맡아 편집했고 문학과지성사 창사 10주년과 20주년을 기념하며 기획된 편서 《해방 40년 : 민족 지성의 회고와 전망》(1985)을 김주연과, 《오늘의 한국 지성, 그 흐름을 읽는다 : 1975~1995》(1995)를 정문길 · 정과리와 함께 편집했다.

저술이며 역서 · 편서까지 내 이름으로 나온 책이 지금까지 모두 37권, 임우기의 청에 의해 솔출판사의 <입장총서>로 나온 나의 선집 《두 열림을 향하여》(1991)의 나의 ‘연보’에서 밝힌 것처럼 “일은 많았는데 보이는 것이 없었”고 그 책의 머리말에서 쓴 것처럼 나의 글쓰기 작업들은 “호랑이가 아닌 고양이를 그리며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야 말았다는 아쉬움이 가시지 않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80년대 초부터, 정치와 현실에 대한 긴장이 느슨해지는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나의 내면적 배회는 상당히 활발했고 내 사유와 정신은 꽤 넓게 돌아다니

며 변해갔다. 문학평론이든 문화비평이든 혹은 시론이든 근 20년간 써온 내 글들은 억압에서 갈등으로, 거기서 다시 해체로 움직여가는 현실과 문화와 문학에 대한 내 나름의 해석과 평가와 모색의 결과들이었다.

### 고전적 리버럴리즘에 지적 뿌리 내려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나의 지적 뿌리는 자유와 민주를 억압하는 권력에 대한 4·19세대다운 고전적인 리버럴리즘에 심어져 있었다. 나는 폭력적인 사회와 폐쇄적인 문화에 분노했고 그래서 다양성과 개방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1980년의 광주사태 이후,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에 대한 환기를 받으면서, 나는 평등주의에 대한 고려를 높이기 시작했고 마르크시즘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사물화(reification) 현상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여기에는 조세희의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며 민중론으로부터 노동계급 운동에 이르는 일련의 진보주의적 사유에서 직접적인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나의 선집 《지식인됨의 괴로움》(문학과지성사, 1996)에 제수록된, 1985년에 씌어진 표제의 글은 전통적인 인문주의자가 급진적인 좌파 사상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내 현실적인 고민을 고해한 것이었다. 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비판적이 돼 갔고 부르주아의 원죄적 속성과 교환가치 세계의 원초적인 타락상에 동의했고 계급론과 평등주의에도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다시 말하지만, 1960년대의 4·19세대였고 역시 교양세대의 인문주의자였다. 나는 운동으로 나서는 것을 기피했을 뿐만 아니라 '혁명'이나 '투쟁'으로 인간사회의 근원적인 부도덕성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았다. 실천운동에 뛰어들어 활동하다가 수난을 입고 희생당한 지식인·학생·노동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결코 지울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전략·전술만이 있는 것은 아닐 뿐더러 나처럼 회의주의적으로 문약한, 그러나 현실과 시대에 대한 반성을 하고 글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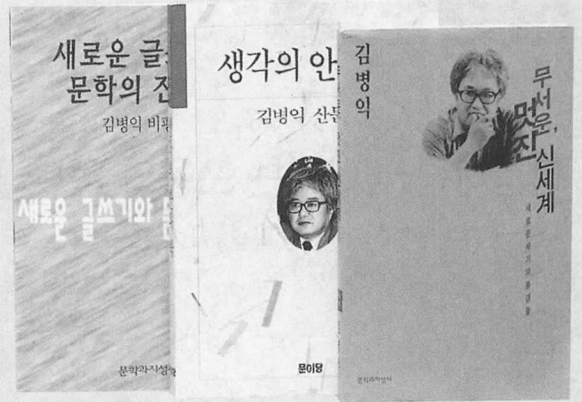
자신과 자신의 인식체계를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학에 있어서도, 나는 민중문학론에 호의적이었지만 그것을 도식적으로 구성해서 가령 '민중에 의한 문학'만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었고 더구나 개인의 실존과 그 내면의 욕망을 무시하는 것에는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끝내 보수주의자였고 또 그렇게 차처했다. 1980년대 중반 급진주의가 더

할 수 없이 경화되고 밀리타적 전략을 취하는 단계에 이르자 진보주의를 따라가던 나의 인식은 거기서 멈추고 말았다. 나는 좌파의 이념에 문을 열고 있었지만 어느 한계 너머로는 나아갈 수 없었고 그렇다고 자본주의의 병리에 대한 회의도 지울 수는 없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고 내게 제시된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온건했다.

### 새로운 문명의 전환 문제에 눈 돌려

그리고 군부정권이 무너지고 우리 현실은 상대적으로나마 자유와 민주주의를 획득해가고 있었으며 동구권이 해체되고, 무엇보다 컴퓨터의 새로운 이기들이 우리의 생활과 문화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이제 나의 관심은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에서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 문제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김원일이 주관하는 계간 《동서문학》에 비평의 글을 연재하게 된 기회에 나는 컴퓨터로 글을 쓰는 방식이 문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작은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생각할수록 그 문명의 변화는 심각한 문제성으로 커져갔고 그 변화는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돼갔다. 이런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며 여기서 문학은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인가의 새로운 고민들이 이렇게 해서 제기됐고 그 고민들의 표현이 《새로운 글쓰기와 문학의 진정성》으로 표현됐다.

이후 근래의 나의 글들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세기의 전환'이란 주제로 몰렸고



20년간 써온 내 글들은 현실과 문화와 문학에 대한 내 나름의 해석과 평가와 모색의 결과들이었다. 사진은 비평집 《새로운 글쓰기와 문학의 진정성》(문학과지성사)과 에세이집 《생각의 안과 밖》(문이당), 《두서운, 멋진 신세계》(문학과지성사).

새로운 시대는 자본과 과학이 유착해 지배하리라는 '자본-과학 복합체론'이란 말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컴퓨터에서 발단되는 멀티미디어의 정보화 사회, 인터넷이 만들어주는 세계화 시대, 그리고 생명공학의 전개와 거기에서 이뤄질 새로운 인간-세계 체제가 나의 의식을 끈질기게 깔고 있었다. 나는 이 새 세기의 새 문명 체제에 긍정적이기도 하고 비판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호오(好惡)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흐를 그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에 저항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은 분명했다. 그것은 전통적인 문학이며 종이책, 문자문화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만드는 것이었고 인문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이 퇴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는 또다시 새로운 문명적 상황 속으로 밀려들어온 것이고, 그럼에도 나의 청장년 시절에 당연한 의무로서 고민하며 글로써 사유하던 힘과 의지는, 이제 희석되고 있고 쓸모 없이 노후해지는 중인 것이었다...●